B.D.A.I
BIG DATA & ARTIFICIAL INTELLIGENCE

AI 시대의 IT 교육 수요 변화

BDAI 9~13기 데이터로 읽는 교육 수요

— 서베이리포트팀 교육 분석 리포트 1호

Trend.Z

26.08

BDAI 서베이&리포트팀 8기
김연재, 이채은, 임재경, 박병준, 이건웅

목차

- Part 0. 교육 수요 분석을 위한 표본 정의 4
- Part 1. BDAI 내부 기반 교육 수요 구조 9
- Part 2. 13기 표본의 준비 상태와 인식 18
- Part 3. 외부 시장 기반 교육 수요 구조 25
- Part 4. 생성형 AI 환경 변화 기반 교육 수요 36
- 결론 43

“수요는 이미 실전으로 옮겨갔다.
그런데 절반은 아직 첫 실전을 시작하지 못했다”

PART 0

교육 수요 분석을 위한 표본 정의

들어가며. 분석에 사용한 표본과 데이터 5

0-A. 여섯 기수 공통 프로필 6

0-B. 전공 계열 구성 8

분석 사용 표본

분석 대상

BDAI 학회원 (8기~13기)

기수 범위 및 분석 항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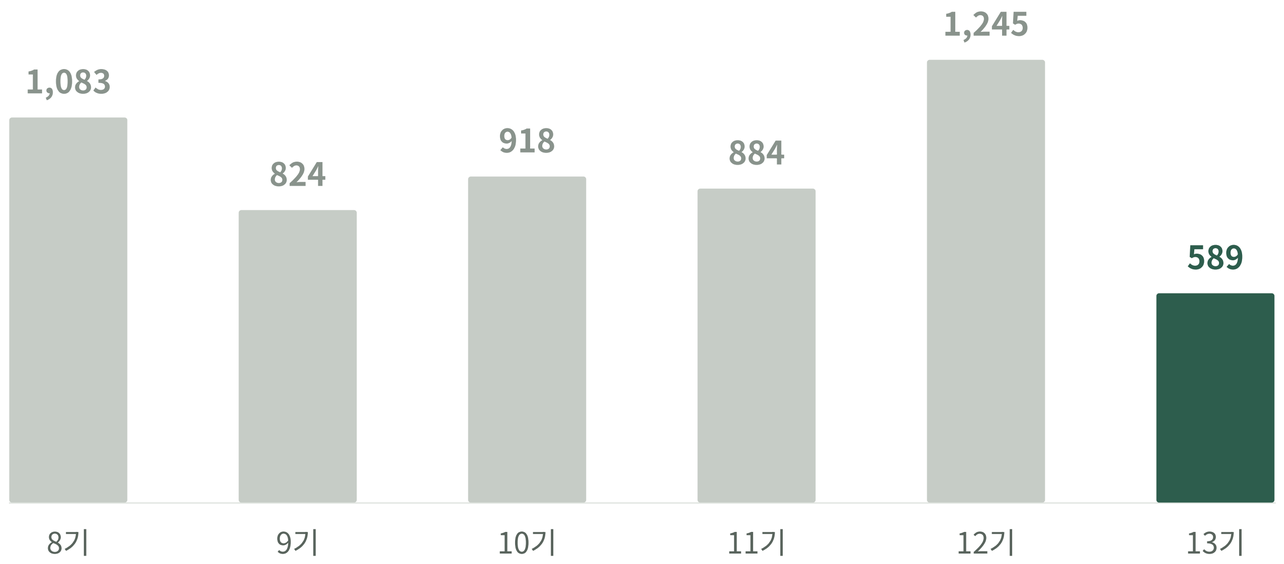
8기~13기

Part 1. 분반 선택과 표본 프로필

13기

Part 2. 외부 교육·취업 준비·AI 인식 문항

표본 (8기~13기, 명)



표본 프로필

프로필 5지표 (9기~13기)

Q. 성별, 생년월일, 현재 상태, 최종 학력, 전공 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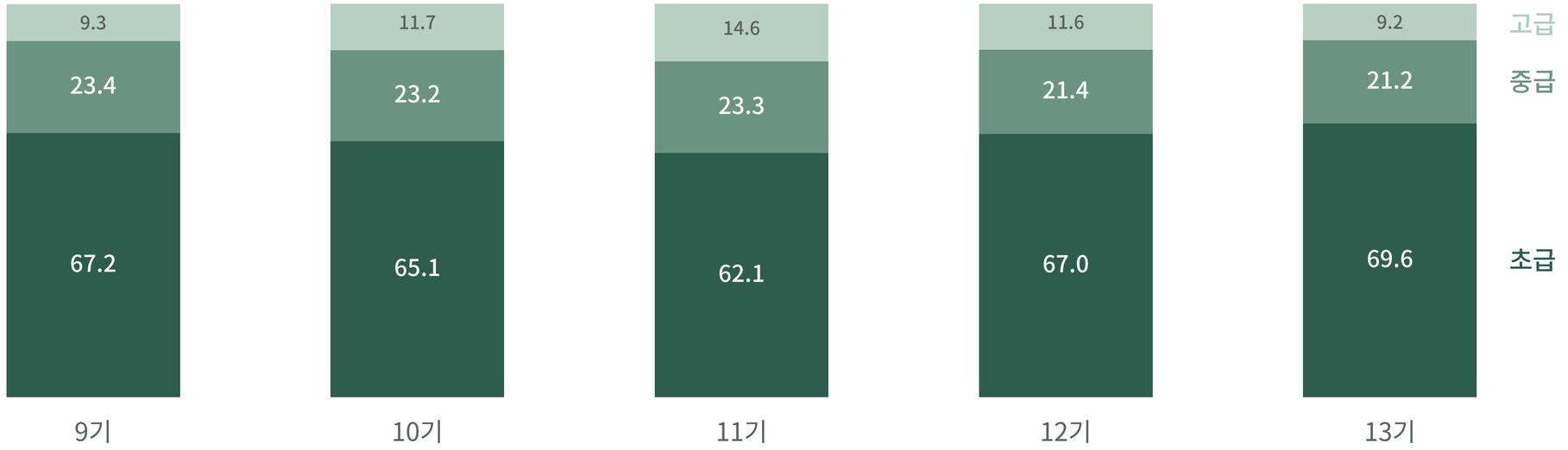
지표	9기	10기	11기	12기	13기	5기수 범위	판정
여성 비중 (%)	65.3	66.4	64.9	64.6	**67.2**	64~67	안정
연령 중앙값 (세)	23	23	23	23	**22.5**	22~24	안정
대학생 비중 (%)	최다	최다	최다	최다	**81.8**	8할 내외	안정
단일 전공 (%)	56.6	59.8	60.3	60.4	**56.6**	56~60	안정
초급 비중 (%)	67.2	65.1	62.1	67.0	**69.6**	62~70	안정

* 8기는 성별·최종 학력·학습 상태 문항이 없어 표에서 제외. 집계 가능한 두 지표는 5기수 범위 안에 존재 (연령 중앙값 23세, 단일 전공 55.6%)

기수별 학습 수준 구성

초급·중급·고급 구성비 (9기~13기, %)

Q. 언어·라이브러리·시각화 숙련도와 스터디·프로젝트·공모전·자격증 경험 여부 문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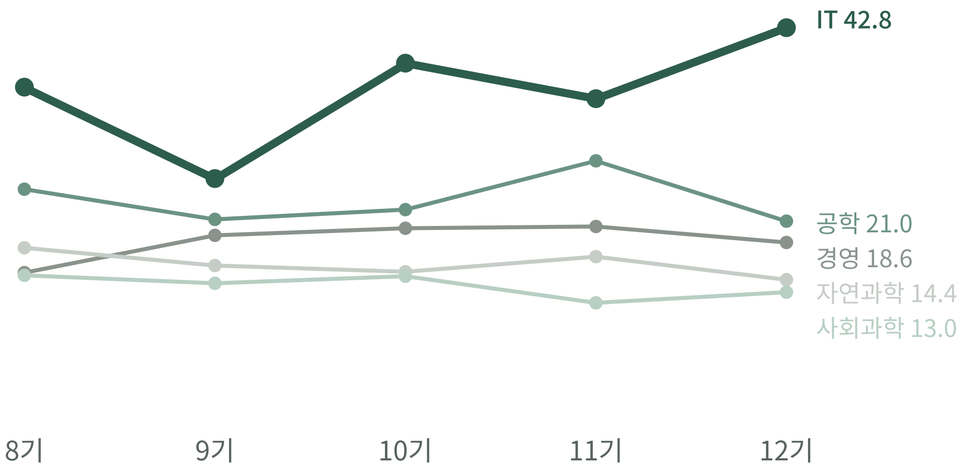


* 8기는 숙련도·경험 문항이 없어 학습 상태 미산출

각 기수는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, 60% 이상 초급 학회원으로 구성된다

전공 계열 유입 추이와 13기 전공 구분

전공 계열 추이 (8기~12기, % / 복수전공 포함)



13기 전공 구분 (n=589, %)

Q. 전공 계열 / 전공 유형



* 인접 전공 = 공학, 자연과학 / 데이터 전공 = IT·컴퓨터·AI, 통계, 수학 / 나머지는 비전공

**IT 계열은 기수마다 오르내리며 12기에 42.8%까지 늘었지만,
13기 구성 비율 1위는 비전공자다**

PART 1

BDAI 내부 기반 교육 수요 구조

1-1. 과목군 수요 구조 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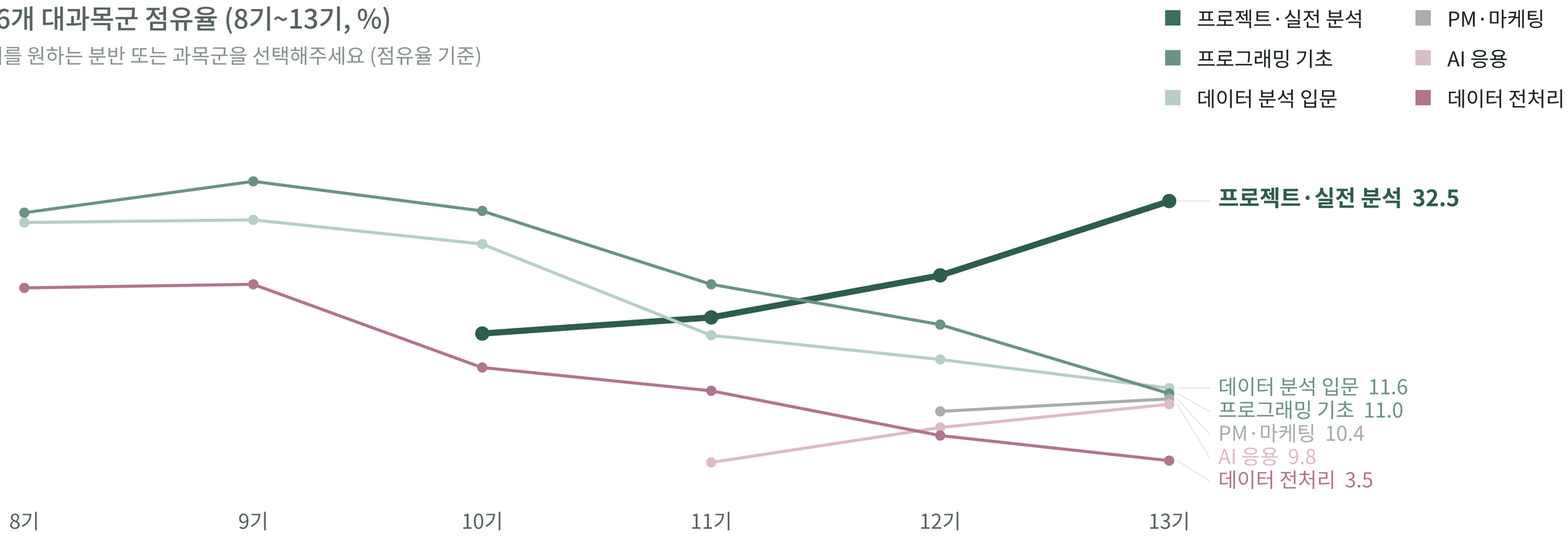
1-2. 전공별 수요 차이 15

1-3. AI 활용과 난이도 수요 16

과목군 선택 비중의 여섯 기수 추이

상위 6개 대과목군 점유율 (8기~13기, %)

Q. 참여를 원하는 분반 또는 과목군을 선택해주세요 (점유율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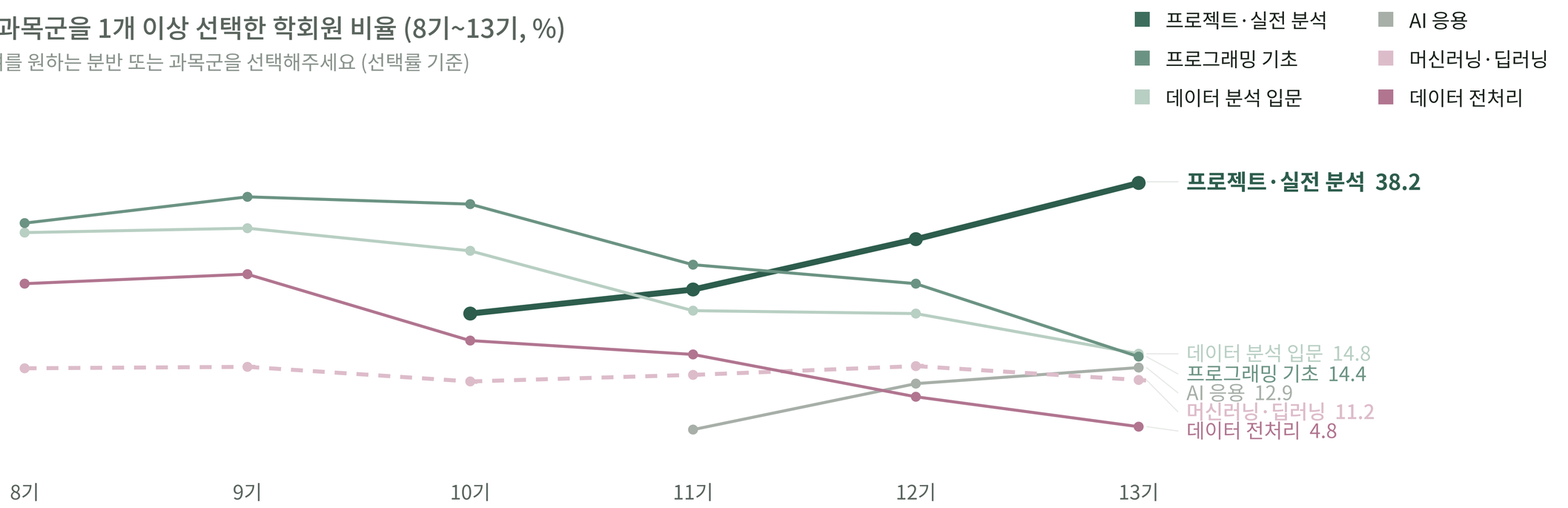


입문 과목을 고르는 비율은 84.1%에서 26.1%로 줄었고, 현재 가장 많이 고르는 것은 실전 과목이다

여섯 기수의 과목 선택 추이

해당 과목군을 1개 이상 선택한 학회원 비율 (8기~13기, %)

Q. 참여를 원하는 분반 또는 과목군을 선택해주세요 (선택률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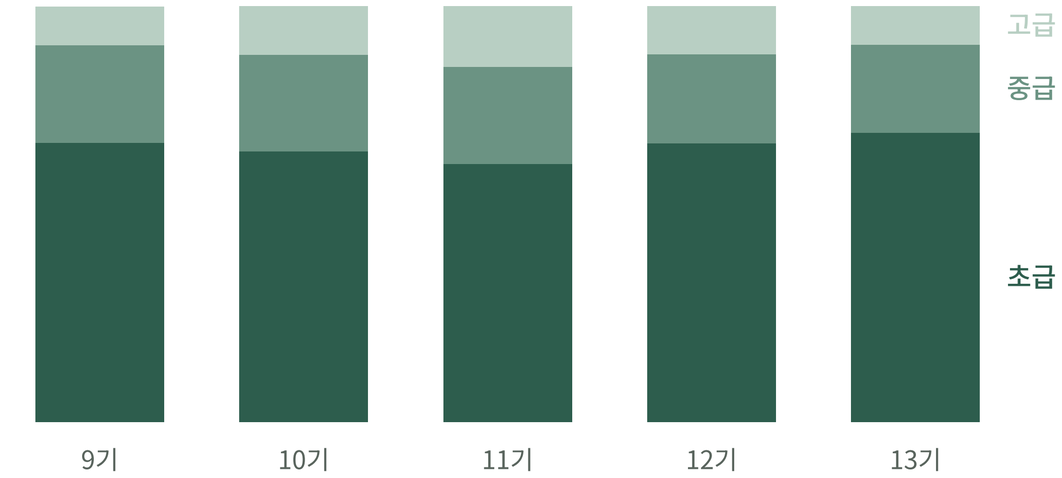


* 1인당 선택 수가 8기 1.10에서 12기 1.48로 늘어, 점유율은 자동 희석 / 8~12기는 수강 확정, 13기는 모집 신청 기준

높아진 실전 과목 수요, 선택률 38.2%로 가장 많다

학습 수준 구성과 과목군 선택의 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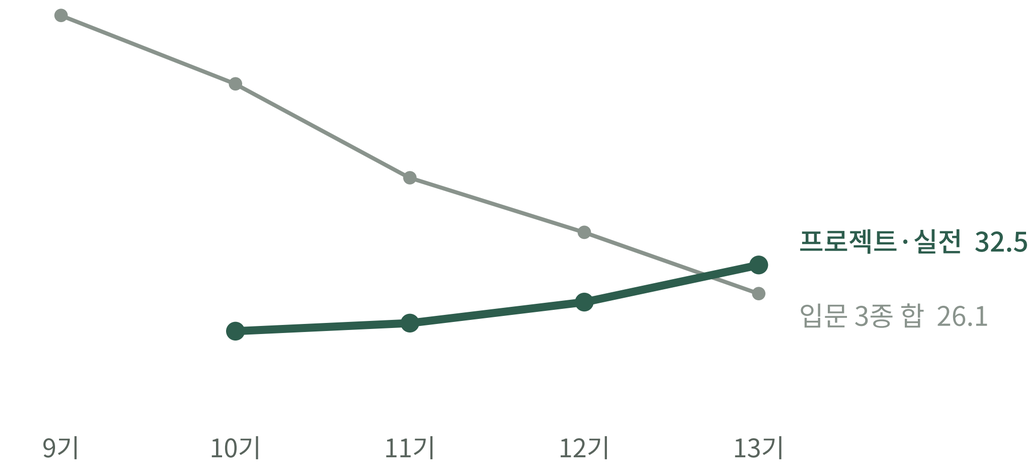
학습 수준 구성, 거의 그대로 (9기~13기, %)



* 왼쪽 %는 학습 상태 구성비

과목군 선택, 완전히 뒤집힘 (%)

Q. 학습 상태 파생 × 분반 선택 재분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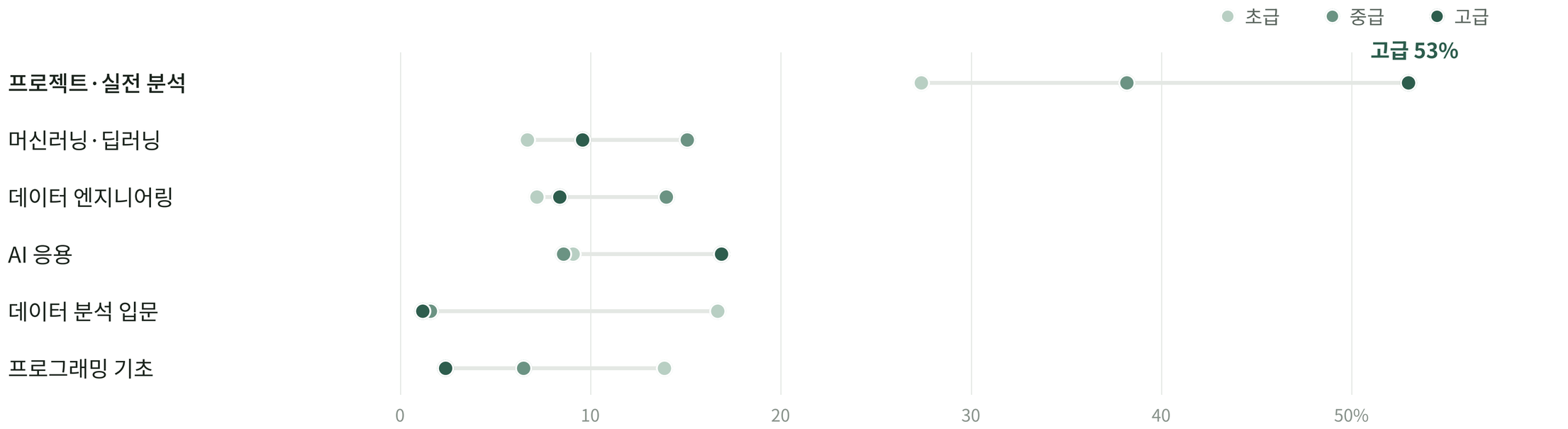
* 오른쪽 %는 분반 선택 비중

기수 간 학습 수준 분포는 비슷하지만 고르는 과목의 수준 구조는 달라졌다

13기 학습 수준별 과목군 선택

수준별 선택 비중 (13기, 선택 809건, %)

Q. 학습 상태 파생 변수 × 분반 선택, 13기 교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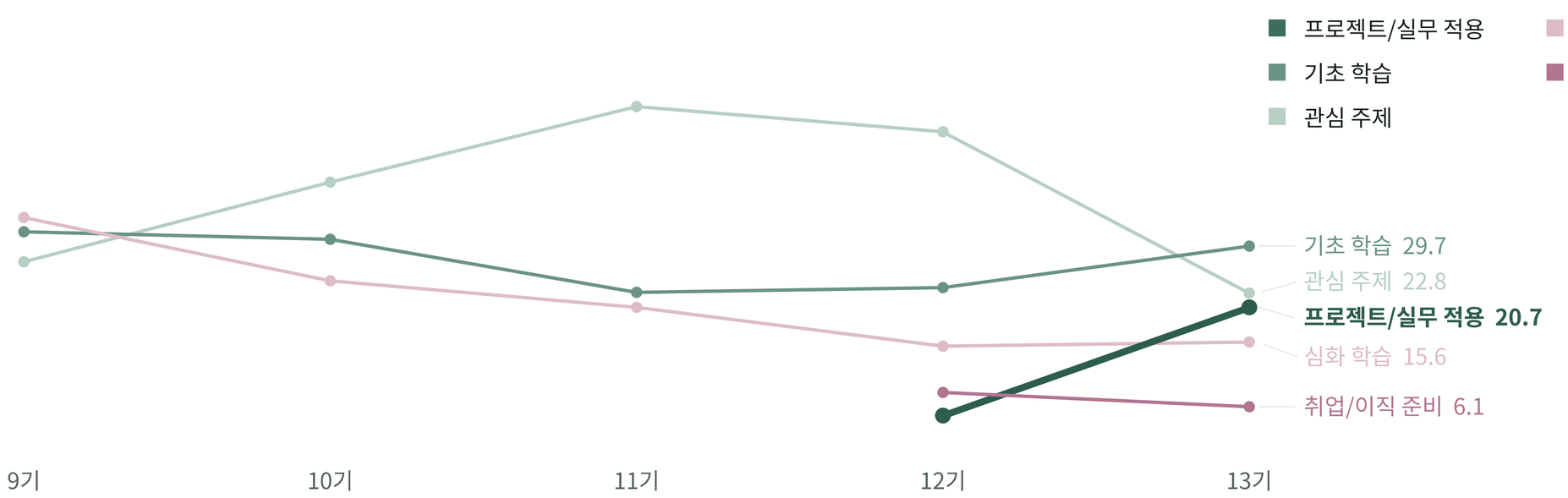


고급의 53.0%가 몰린 실전, 배움에서 실전 적용으로 움직이고 있다

분반 선택 이유의 다섯 기수 추이

이유 5항목 분포 (9기~13기, %)

Q. 해당 분반 또는 과목군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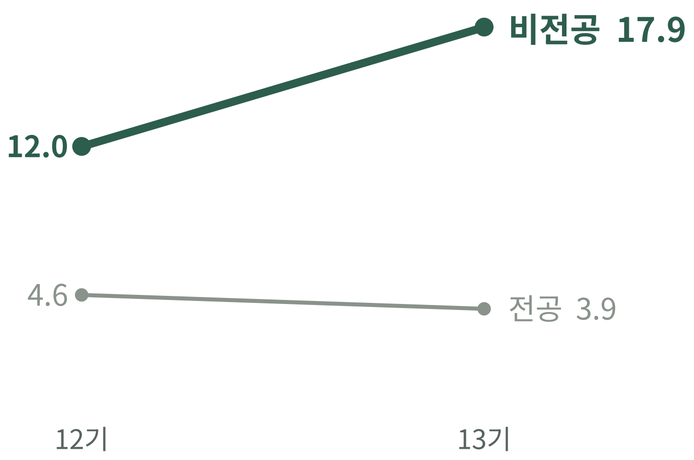
* 12기 이전에는 실무·취업 선택지 없음. 13기 선택지 문구 개편으로 관심 주제 급감은 문항 효과 혼재, 관심+실무 합산(51.3→43.5)으로 해석 권장

분반을 고른 이유로 실무 적용을 선택한 사람이 두 배로 늘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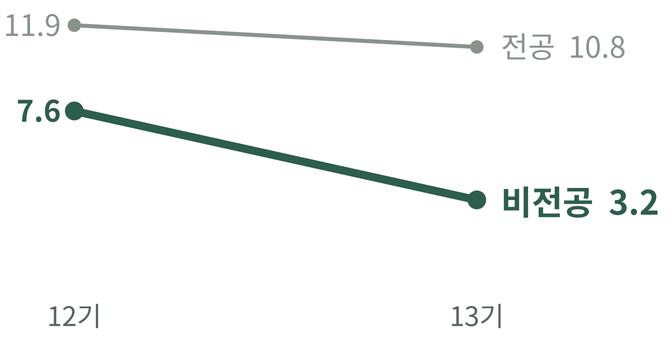
전공 구분별 과목군 선택 변화, 12기와 13기

PM · 마케팅, 비전공의 우회로 (%)

Q. 전공 유형 × 분반 선택, 12 · 13기 교차



머신러닝 · 딥러닝, 전공의 영역 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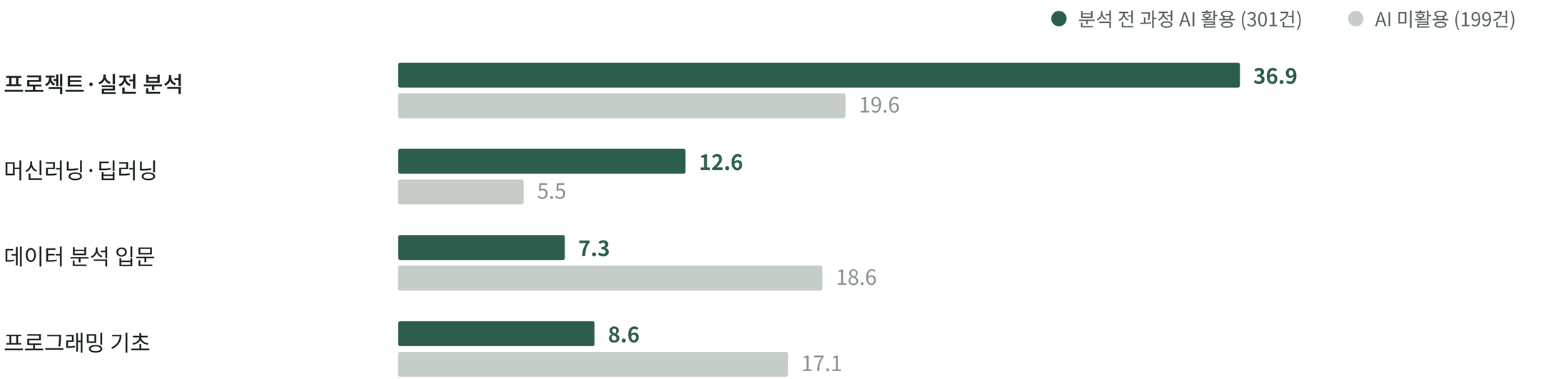
* 12기는 데이터팀 1-2 집계, 13기 전공 분류는 잠정(2분류 정의 합의 전)

**비전공자는 머신러닝 · 딥러닝에서 빠져나와 PM · 마케팅으로 옮겨갔고,
전공자의 선택은 거의 그대로다**

분석 AI 활용 수준별 과목군 선택

과목군 4개 선택 비중 (13기, %)

Q.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어느 단계까지 활용하시나요 × 분반 선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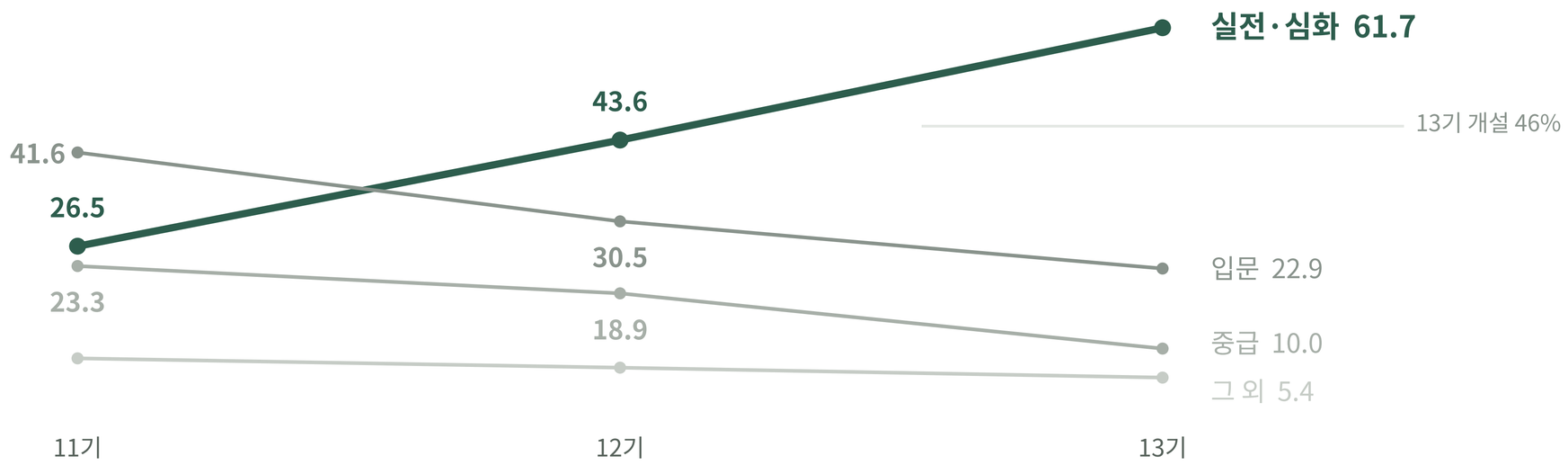
* 11~12기(데이터팀 1-3)와 같은 방향, 3기수째 일관

AI를 분석 전 과정에 쓰는 사람일수록 더 어려운 과목을 고른다

희망 분반의 난이도 구성 추이

희망 분반 난이도별 선택 비중 (11기~13기, %, 13기 809건 기준)

Q. 분반 선택 × 난이도 분류 (11·12기 규칙을 13기 35개 분반에 승계)



**입문과 중급을 원하는 사람이 세 기수 만에 반으로 줄었고,
실전·심화를 원하는 61.7%를 개설 분반 46%가 따라가지 못한다**

PART 2

13기 표본의 준비 상태와 인식

2-1. 표본 구성 19

2-2. 희망 직무와 관심 도메인 2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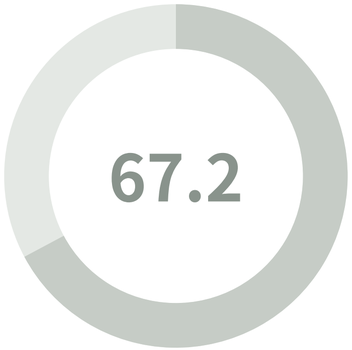
2-3. 취업 준비와 역량 인식 21

2-4. 진입 직전 지표와 가용 시간 23

13기 표본의 기본 구성 네 지표

표본 구성 (n=589, %)

Q. 성별, 거주 지역, 현재 상태, 학습 상태(파생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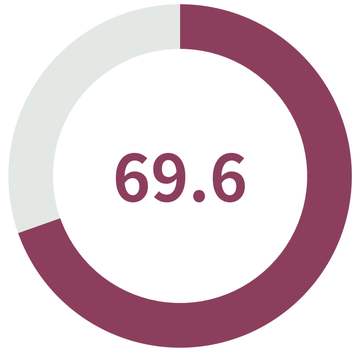
여성



대학 재학



수도권 거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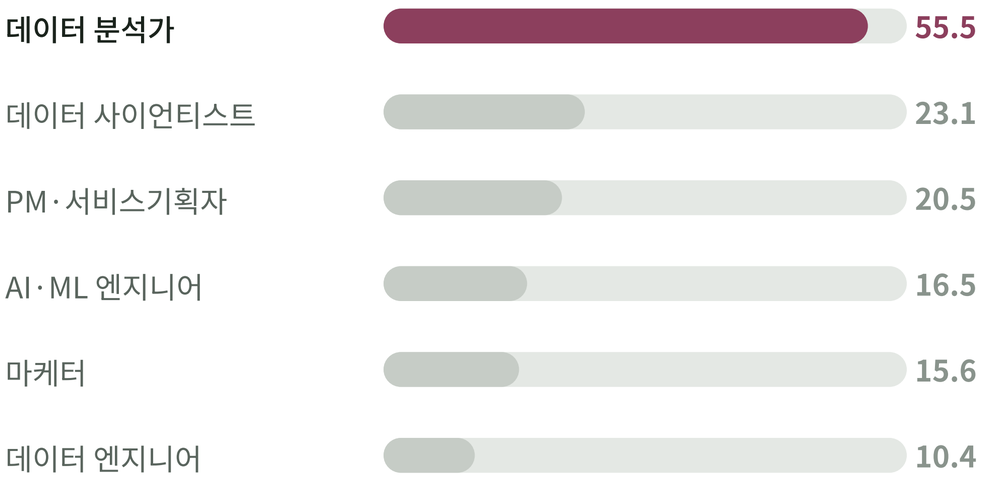
학습 수준 초급

13기 589명은 대부분 대학에 재학 중이고, 열 명 중 일곱은 데이터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한 초급이다

희망 직무와 관심 도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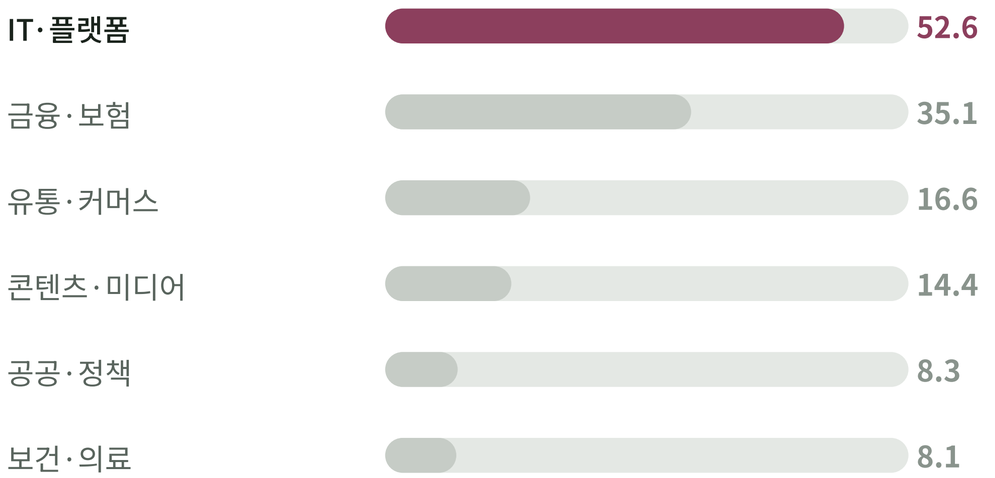
희망 직무 상위 6개 (13기, 복수응답 %)

Q. 희망 직무는 무엇인가요



관심 도메인 상위 6개 (13기, 복수응답 %)

Q. 관심 있는 도메인은 무엇인가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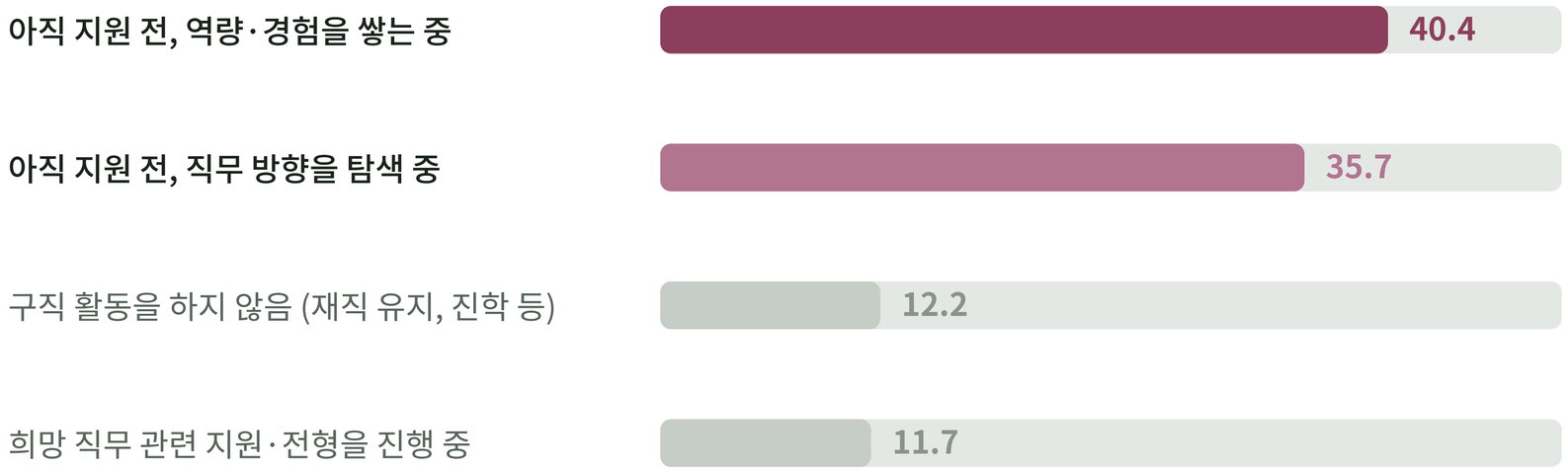
* 직무·도메인 1위는 9기부터 13기까지 순위 변동 없음

13기 학회원 응답자 표본은 데이터 분석가를 제일 많이 희망한다

취업 준비 단계 분포

지원 활동 4단계 (13기, n=589, %)

Q. 현재 취업·이직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나요



76.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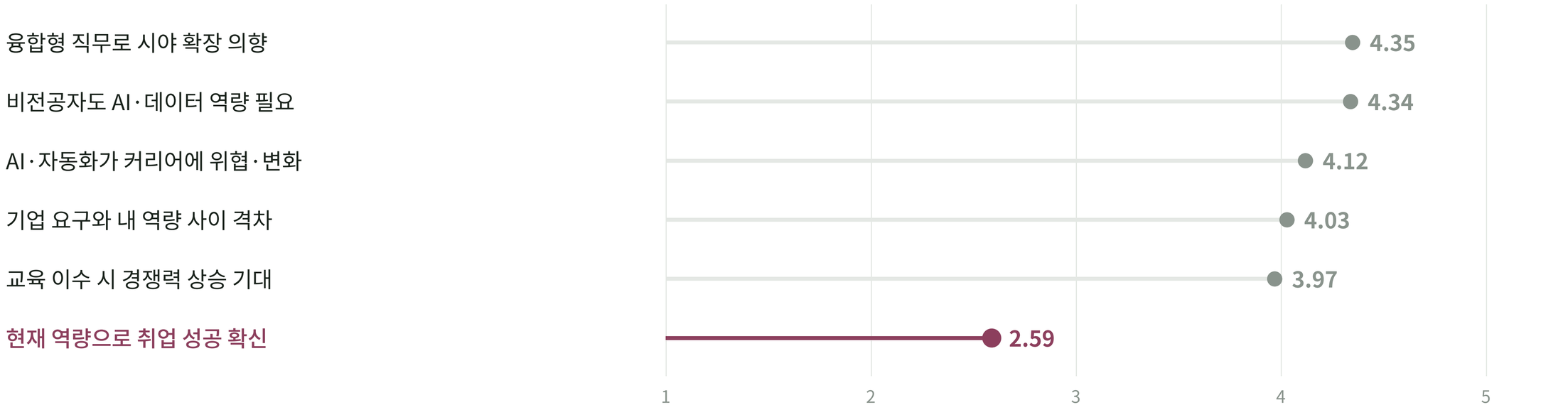
아직 지원 전 단계 (위 두 줄 합산)

네 명 중 세 명은 아직 어느 회사에도 지원해 본 적이 없다

역량과 취업에 대한 인식 6지표

5점 척도 평균 (13기, n=589)

Q. 아래 항목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(5점 척도, 6문항)



배움이 필요하냐는 물음에는 모두 그렇다로 답했는데, 취업 자신감은 그렇지 않다로 응답했다

진입 직전 집단의 4가지 지표

Q. 외부 교육 수강 경험 / 취업 지원 활동 / 이전 BDAI 참여 경험 (13기 n=589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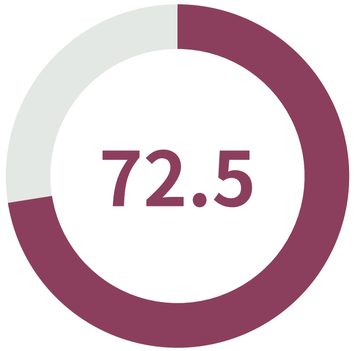
외부 데이터·AI 교육 경험 없음



유료 강의 수강 경험



취업 지원 전 단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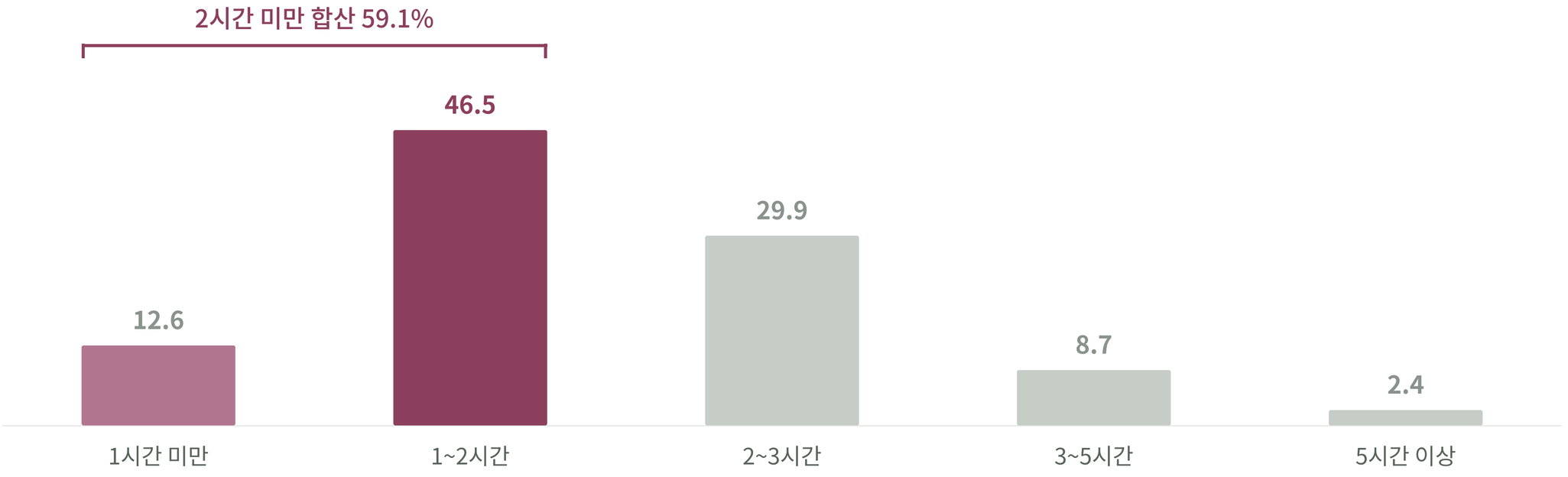
BDAI 첫 참여

외부 교육도, 취업 지원도, 학회 활동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표본의 다수다

하루 학습 가용 시간 분포

가용 시간 구간별 응답 (13기, n=589, %)

Q. 학업 외 하루 평균 데이터·AI 학습에 투자 가능한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



공부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열에 여섯이 하루 2시간을 넘지 않는다

PART 3

외부 시장 기반 교육 수요 구조

3-1. 외부 교육 경험 현황 26

3-2. 필요와 자신감의 격차 28

3-3. 수준마다 다른 진입 장벽 3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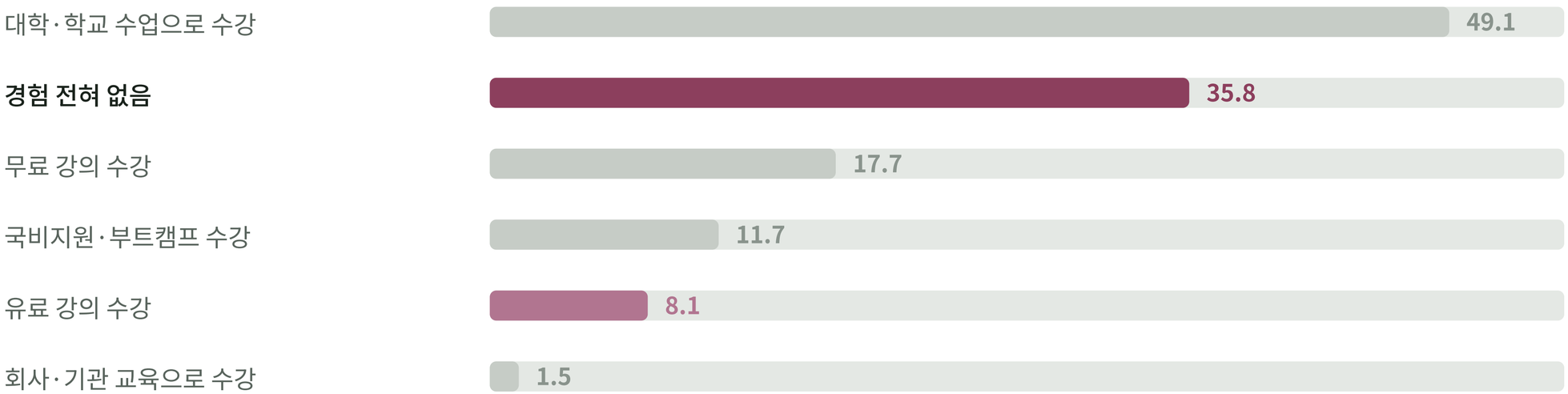
3-4. 교육 선택 기준과 목적 34

3

외부 데이터·AI 교육 경험

경험 유형별 응답 (13기, n=589, 복수응답 %)

Q. BDAI가 아닌 외부에서 데이터·AI 관련 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나요 (복수 응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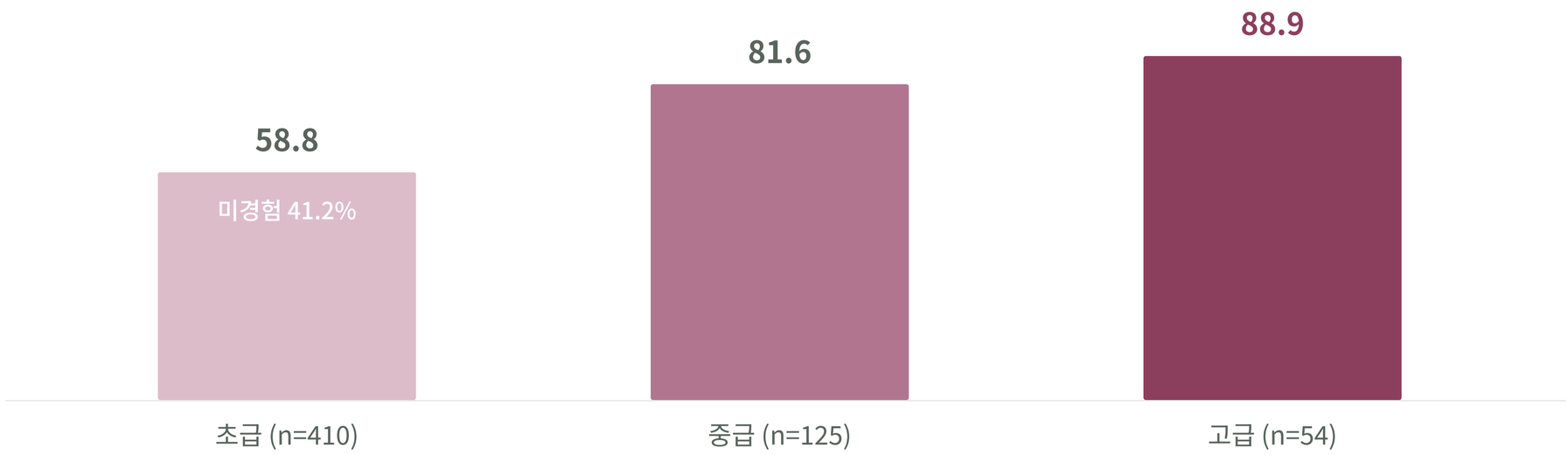


외부에서 받은 교육은 대학 수업과 무료 강의가 대부분이며, 유료 강의는 경험이 적다

학습 수준별 외부 교육 경험률

수준별 외부 교육 경험률 (13기, %)

Q. 학습 상태 파생 변수 × 외부 교육 경험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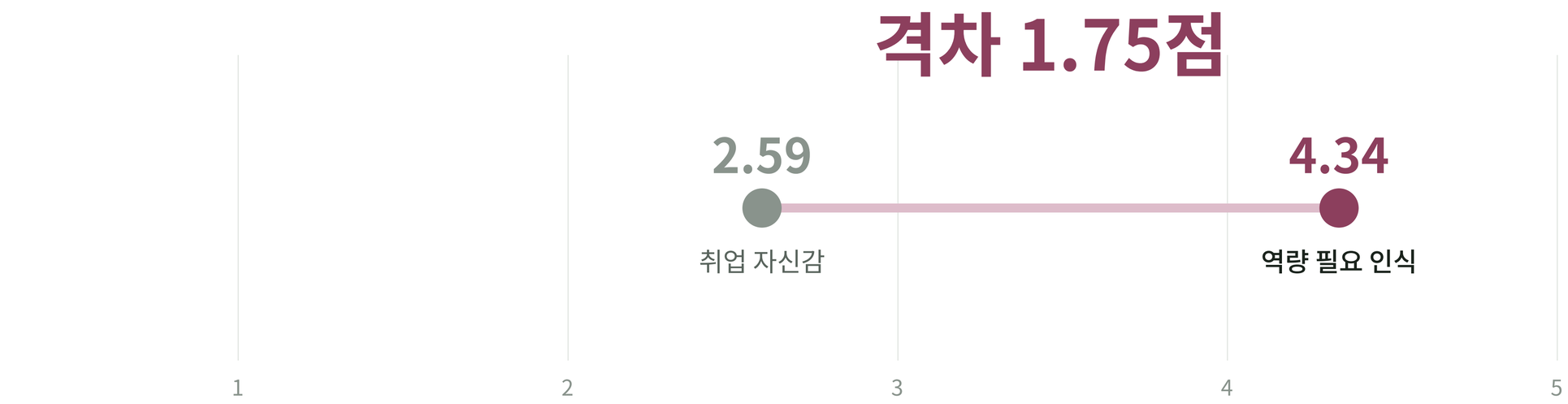


외부 교육을 거친 사람은 실력이 높은 것이 확인됐다

역량 필요 인식과 취업 자신감의 격차

두 인식 지표 평균 (13기, n=589, 5점 척도)

Q. 비전공자도 AI·데이터 역량이 필요하다 / 현재 역량으로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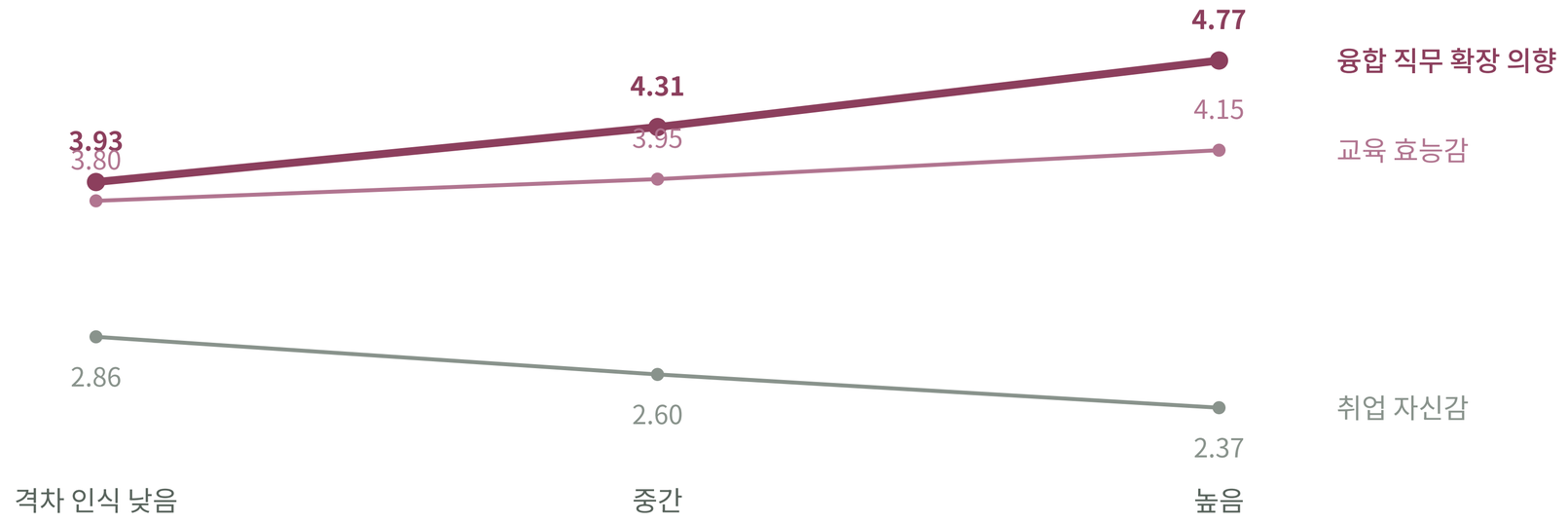
* 대응표본 t=34.3, Cohen의 d=1.41, 응답자 거의 전원에게서 같은 방향

역량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높지만 아직 역량 확보가 되지 않았다. 취업 자신감이 낮다

격차 인식 수준별 세 가지 인식

격차 인식 구간별 3지표 평균 (13기, 5점 척도)

Q. 기업 요구와 내 역량 사이 격차 인식 × 융합 의향, 교육 효능감, 취업 자신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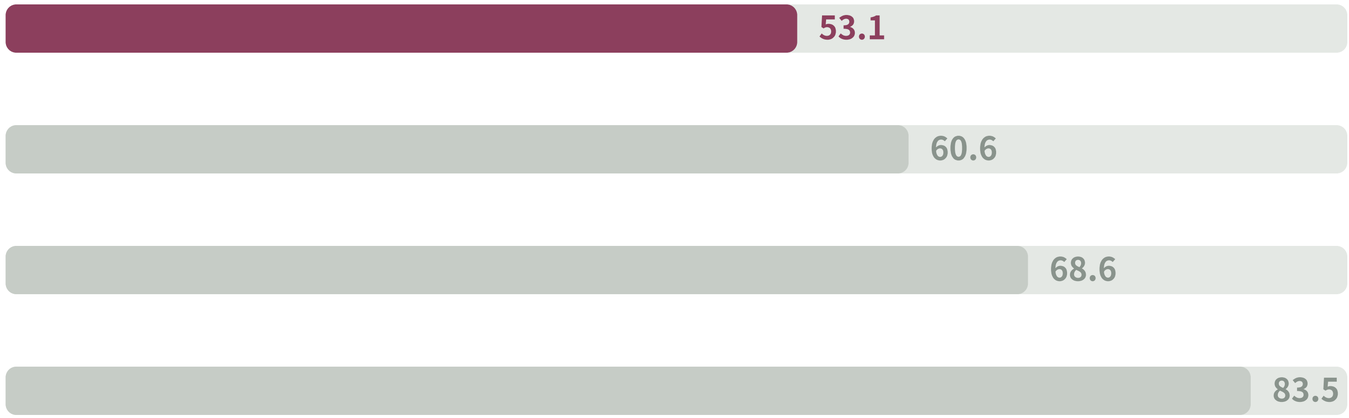
* 격차 인식과 융합 의향의 상관 r=0.439, p<.001

기업이 원하는 수준과 본인 실력 차이를 크게 느낄수록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진다

실전 경험 보유 현황

경험 0회 비율 (13기, n=589, %)

Q. 데이터·AI 프로젝트 / 공모전 참여 횟수와 수상 경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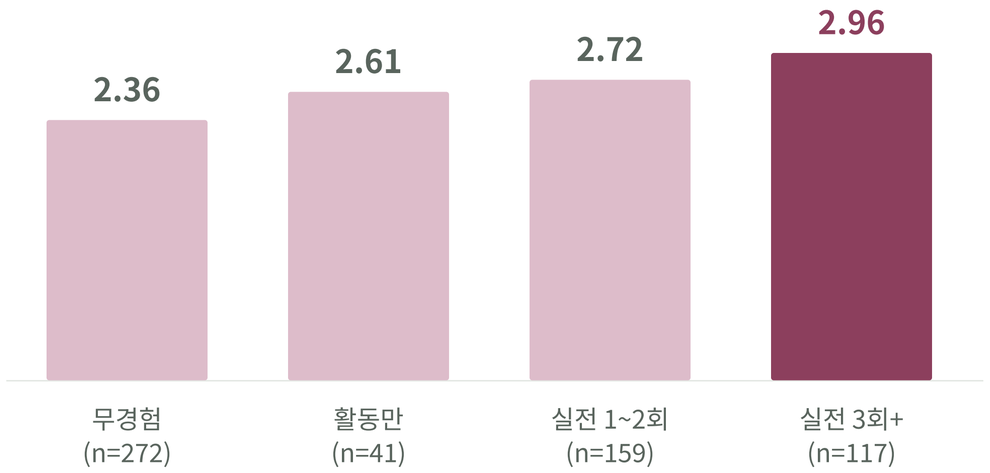


* Part 1의 실전 분반 선택률 38.2%와 이 무경험 절반은 같은 표본

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프로젝트와 공모전의 경험이 없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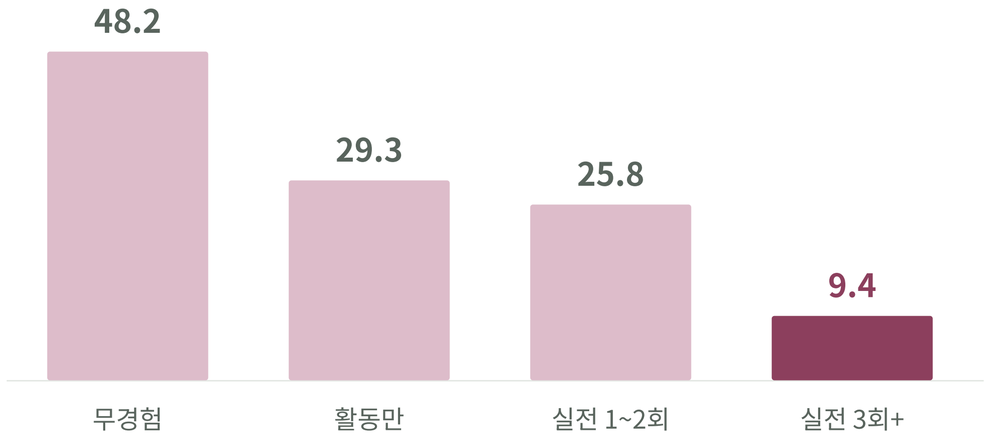
실전 경험 구간별 자신감과 두려움

구간별 취업 자신감 (5점 평균)



기초 두려움 선택률 (%)

Q. 실전 경험 구간 × 취업 자신감, 기초 두려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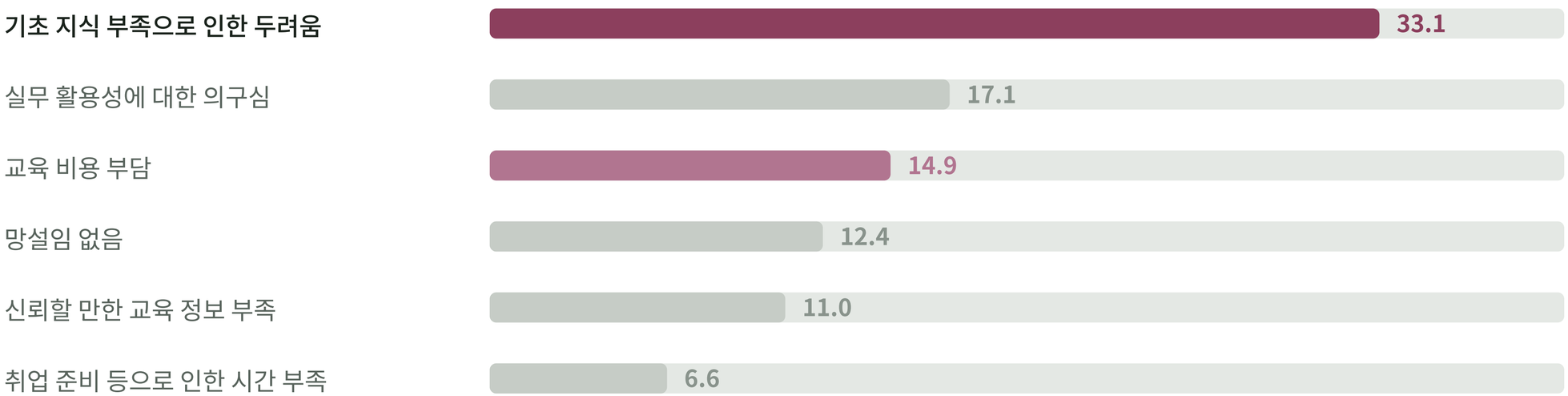


실전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경험의 부재이다

교육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

망설임 이유 분포 (13기, n=589, %)

Q. 교육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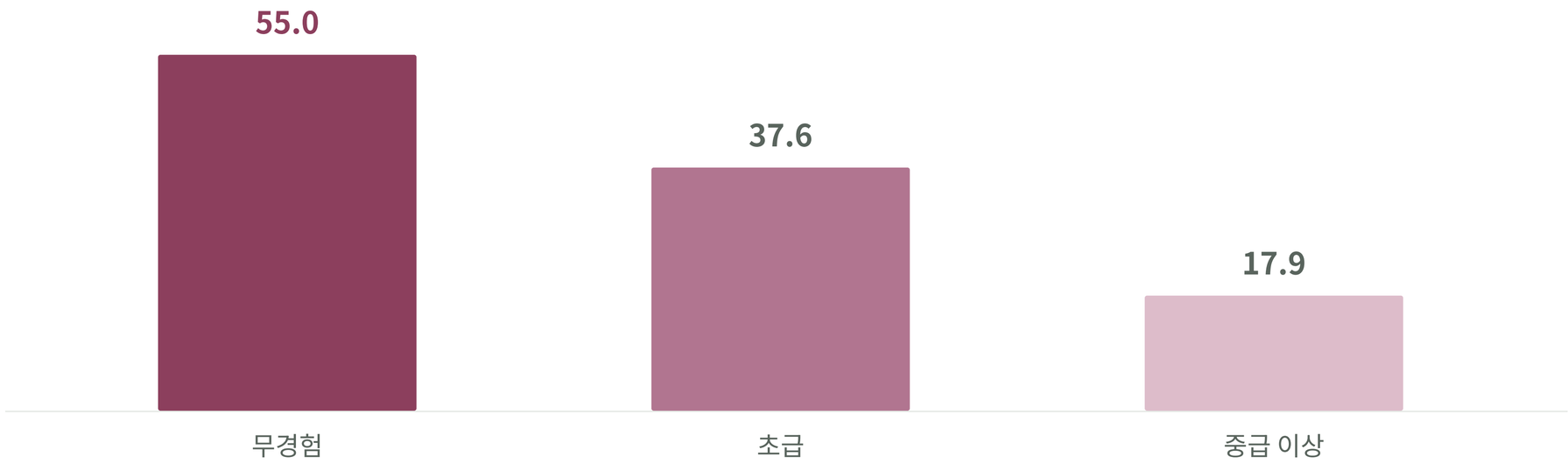


이제 시작하는 사람은 기초 지식의 장벽으로, 이미 아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설인다

Python 숙련도별 진입 두려움

숙련도별 기초 두려움 선택률 (13기, %)

Q. Python 숙련도 × 기초 지식 부족으로 인한 두려움 선택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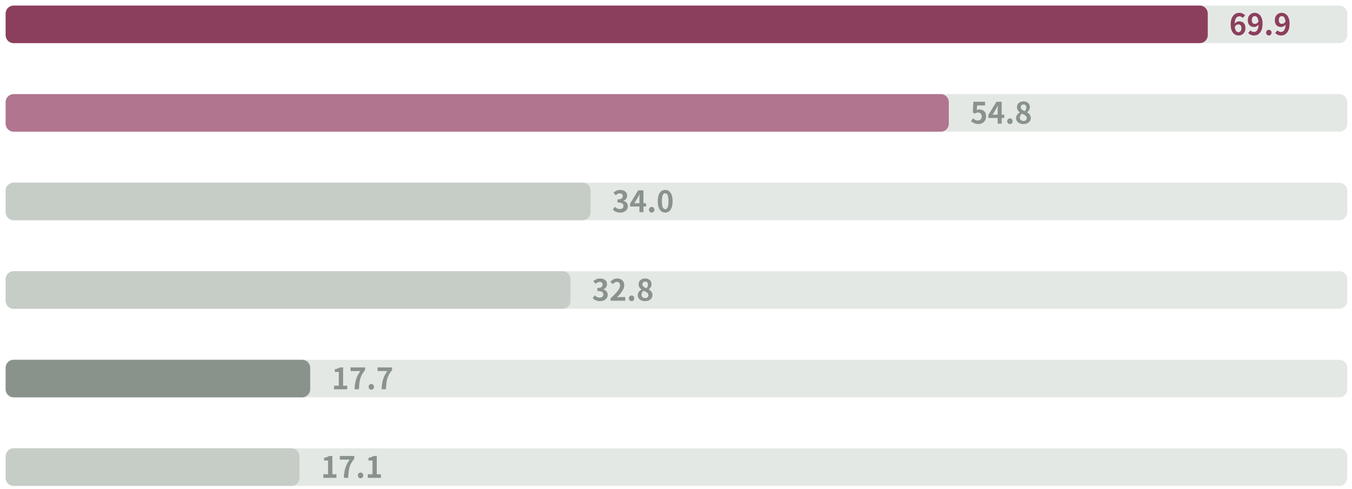
* 전공 구분별 차이보다 코딩 경험별 차이가 크다 (원고 2-4-4)

55.0%에서 17.9%로 줄어드는 두려움, 교육으로 해소 가능한 장벽

외부 교육 선택 기준

선택 기준 상위 6개 (13기, 복수응답 %)

Q. 외부 교육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(최대 3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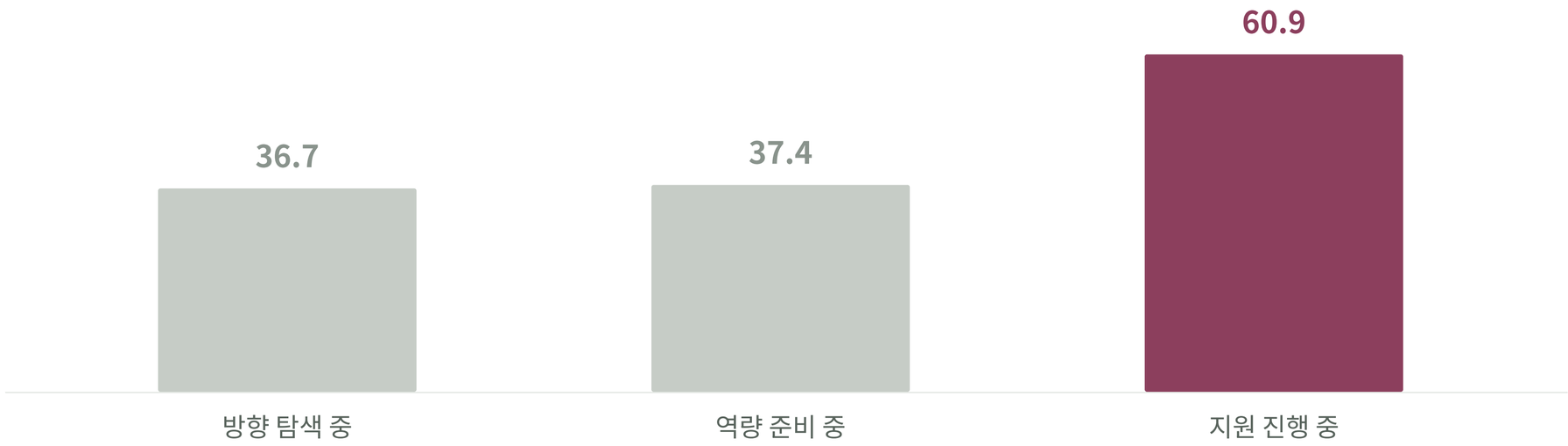


커리큘럼 69.9%와 수강료 17.7%, 가격이 아니라 결과물이 만드는 설득

취업 준비 단계별 교육 목적

단계별 취업 경쟁력 강화 응답 (13기, %)

Q. 교육에 참여하는 주된 목적 × 취업 지원 단계



* 전체 1위는 취업 경쟁력 강화 37.5%, 데이터 직무 진입 준비 22.2%와 합쳐 6할이 커리어 목적

지원 진행 중 60.9%, 탐색에서 증명으로 바뀌는 교육 목적

PART 4

생성형 AI 환경 변화 기반 교육 수요

4-1. 사용 실태 37

4-2. 전공 격차의 소멸 38

4-3. 활용 깊이의 한계 3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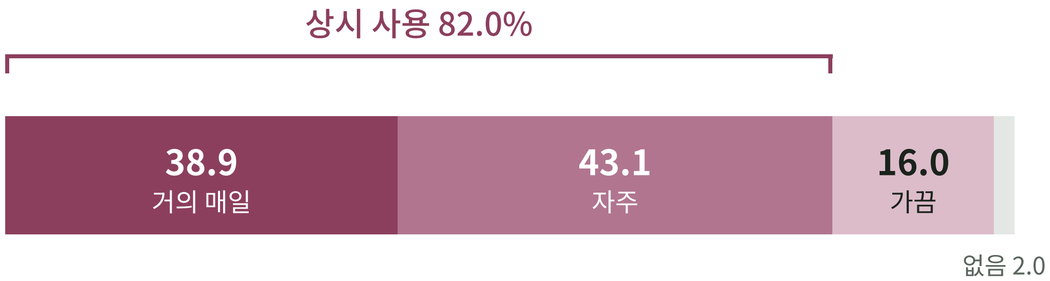
4-4. 검증 방법과 공백 40

4-5. 위협 인식과 희망 주제 41

4

생성형 AI 사용 빈도와 주 사용 도구

사용 빈도 (n=589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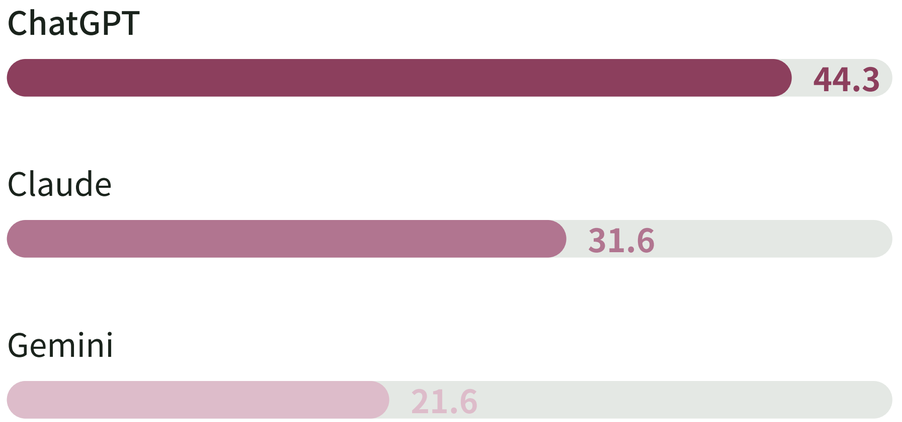


98.0%

사용 경험 (없음 2.0% 제외 전원)

주 사용 도구 (n=589, %)

Q. 생성형 AI 사용 경험, 사용 빈도, 주 사용 도구



* 상위 3개 도구, 그 외 합산 2.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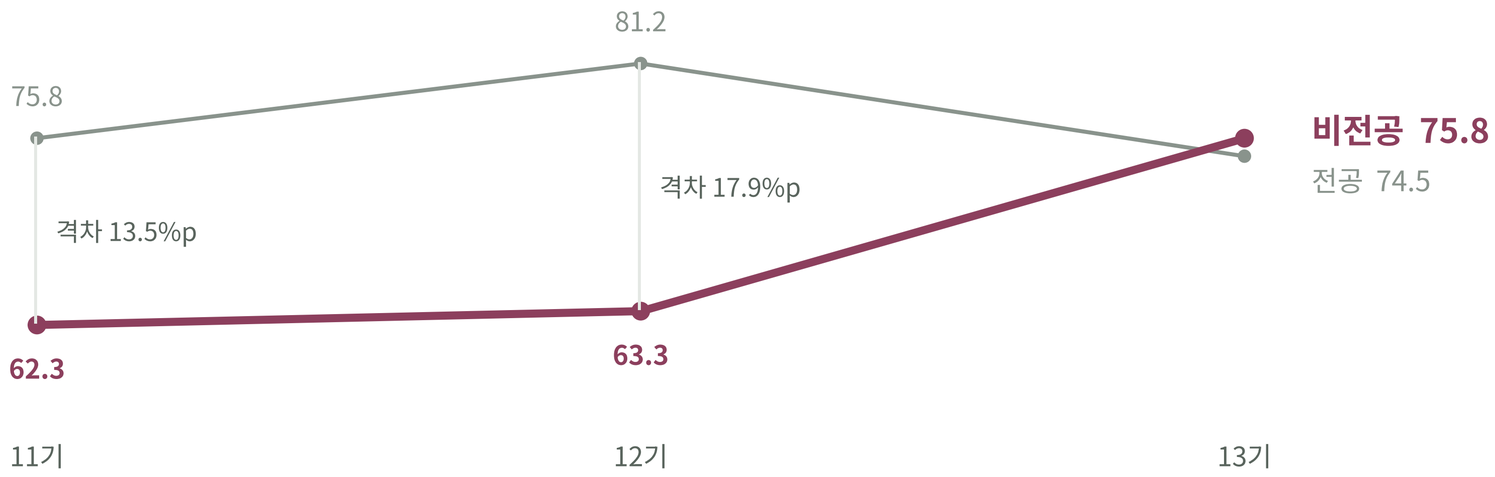
생성형 AI는 이미 모두가 쓰고 있다

전공 구분별 분석 AI 사용률 추이

데이터 분석 시 AI 사용률 (11기~13기, %)

— 13기에서 격차 소멸, 비전공 75.8%가 전공 74.5%를 1.3%p 앞섬

Q.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의 AI 사용 여부 × 전공 구분 (11기~13기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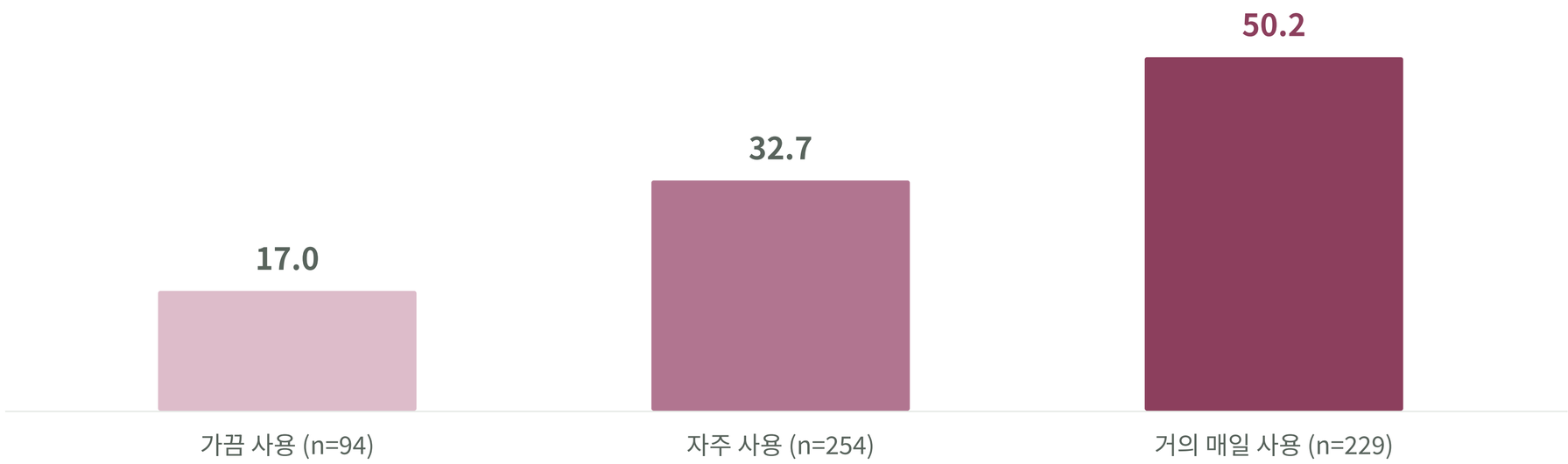
* 11·12기는 major_data 2분류, 13기는 계열 3분류의 잠정 대조 (전공 분류 기준 상이)

생성형 AI를 쓰기 시작하면서 분석에 AI를 쓰는 비율의 전공자와 비전공자 차이가 사라졌다

사용 빈도별 분석 전 과정 활용률

분석 전 과정 AI 활용 응답률 (13기, %)

Q.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어느 단계까지 활용하시나요 × 사용 빈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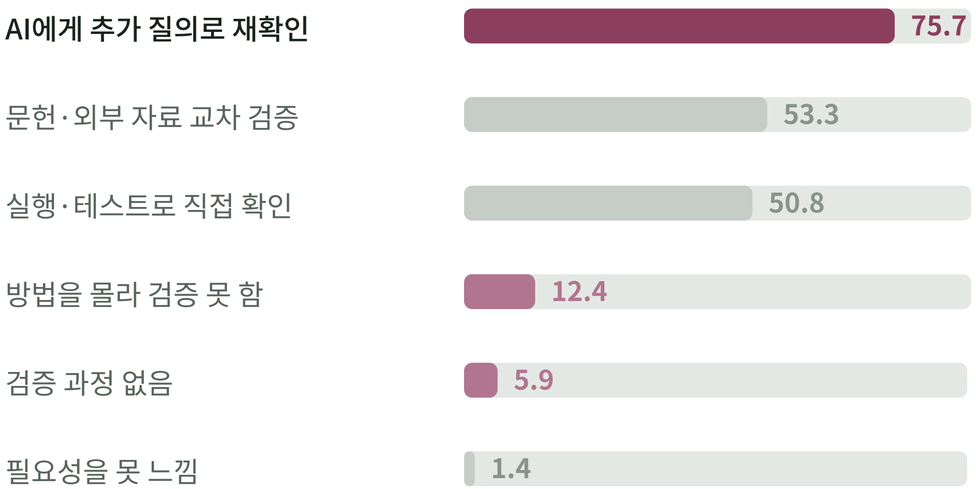


* 11~12기 AI 활용 지수는 재현 불가라 사용 빈도 4단계로 축 교체. 사용 경험 없음(n=12) 제외

AI를 매일 쓰는 사람 중 절반만이 분석 과정 전체에 쓴다

AI 결과물 검증 방법과 검증 공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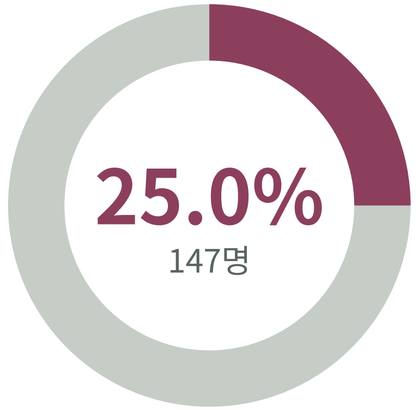
검증 방법 (n=589, 복수응답 %)



* 1위가 AI 내부 재확인, 불신의 해소를 다시 AI에게 묻는 구조

외부 검증 수단 보유 (n=589)

Q. AI 결과물을 어떻게 검증하시나요 (복수 응답)



문헌 교차 검증도, 직접 테스트도 없는 검증 공백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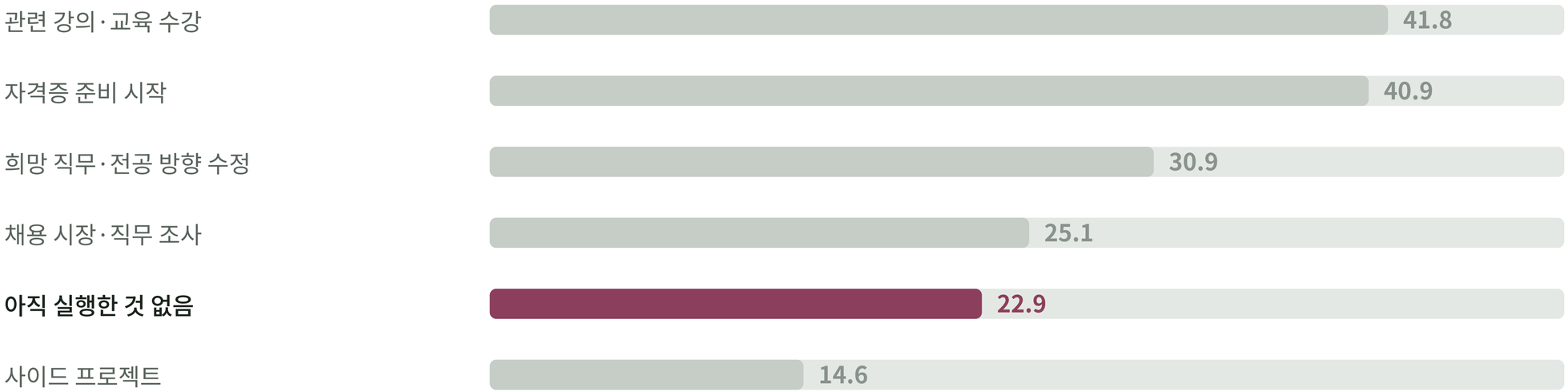
AI가 준 답변을 확인할 때도 75.7%가 다시 AI를 활용하며, 4명 중 1명은 별도의 검증 방법이 없다

AI 위협 인식과 대응 활동

위협 대응 활동 (n=589, 복수응답 %)

Q. AI·자동화 위협 인식(5점) / 이에 대응해 실행한 활동은 무엇인가요 (복수)

위협 인식 평균 4.12점, 긍정 응답 82.2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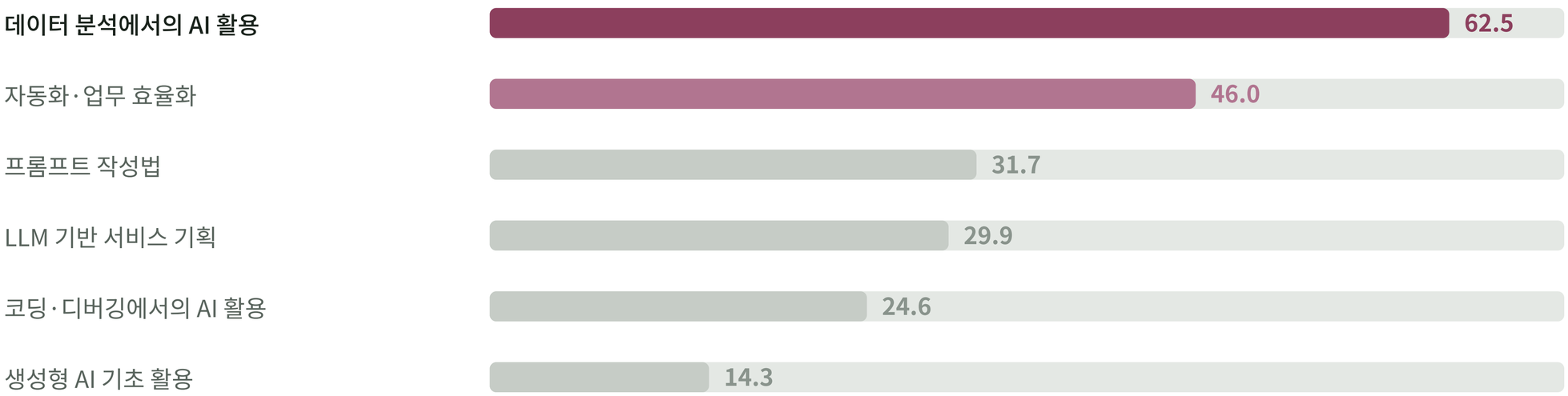


AI가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느끼지만 별다른 대응은 시작하지 않았다

생성형 AI 교육 희망 주제

희망 주제 상위 6개 (n=589, 복수응답 %)

Q. 생성형 AI 교육이 열린다면 어떤 주제를 배우고 싶으신가요



* Part 1의 1위 분반(AI 기반 금융 데이터 분석 실무)과 같은 방향

배우고 싶은 주제는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으로 지금 수요가 높은 과목과 방향이 같다

이 세대는 이미 설득돼 있다

01 여섯 기수 동안 같은 성격의 집단이 계속 유입되는데, **그들의 선택은 실전으로** 뒤집혔다.

02 **필요는 4.34점으로 합의**됐지만, **절반은 두려움 앞에서 첫 실전을 시작하지 못했다**.

03 **생성형 AI**는 이미 보편화되어 **비전공자의 진입 경로**를 새로 열었다.

04 이 세대는 왜 배워야 하는가를 물을 단계를 지났다. **남은 질문은 "나도 할 수 있는가"**다.

그래서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가

01

기초부터 체계적인 커리큘럼

33.1%

진입을 막는 기초 두려움

02

주제 선정부터 가이드된 실전 프로젝트

53.1%

실전 경험 0회의 절반

03

AI 검증 역량 교육

25.0%

외부 검증 수단 부재